

## ■ 특 별 기 고



최 만 식

얼마 전 부산상공회의소 교수단 특강과 부산항만공사 승선체험을 했으며, 오늘도 경제동아리 학생들이 부산국제청호보관, 한국거래소에 체험활동을 다녀왔다. 하루 건너서 경학당(정독실)학생 80여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진로체험활동을 다녀올 예정이고, 다음 주에 부산광역시청 및 시의회, 부

산본부서관박물관 체험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언론에도 보도 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선정 과학동아리 'GIBs' 동아리, 전국 '청소년역사체험발표대회'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여 수상한 '역사in' 동아리, 영자신문 'PONIC'을 발행하여 부산광역시 주최 영자신문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자신문부' 동아리 활동, 수심 건의 수상을 한 각종 경시대회 활동에도 학생들은 적극적이다.

아마도 몇 년 전 같았으면 선생님이 관해도 학생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를 피했을 것이 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더 적

극적이다. 이는 수시전형(전체 62.9%, 서울대는 80%)과 입학사정관제(11.5%) 확대라는 새로운 입시 경향과 추세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자칫히 중요해졌지만 이것만으로 대학에 갈 수가 없다. 그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기초학력 제고이다.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이 요소는 대입의 기본이다.

학교수업에 집중하여 수능성과와 내신(학생부)성적을 관리하는 것은 대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수업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스펙만 관리하는 학생을 대학교는

원하지 않는다. 특히 3학년은 수능과 내신 성적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게다가 EBS방송수업 청취(수능 70%이상 출제)도 필요하다.

둘째, 수능과 내신을 관리하면서, 논술과 면접·구술 기술 문제 유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진학을 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논술이나 면접·구술 기술문제를 찾아 풀어 보아야 한다.

자연계열 상위권대학 지원자의 경우 수리·과학논술 문제 유형의 적응이 필요하다.

또 평소에도 다양한 독서, 글쓰기 습관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수업 외의 다양한 교내외 활동, 학습동아리활동, 연구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

여하고 그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에듀넷에 입력하거나 프로파일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단순히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활동하면서 느낀 점, 자신의 학업 및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물론 자신의 활동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와 관련이 있을수록 좋다.

넷째, 각종 경시대회 참여, 어학 시험성적, 수상, 자격증, 각종 경력(학생회장, 반장 등)도 있는 것이 좋다.

다섯째, 대입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선생님과 상담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첫째 요소로만 모든 대

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그 이하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수시전형에서 학교 내신 석차 2등이 불합격하고 6등이 합격한 예가 있는데, 이는 바로 둘째 이하 요소의 영향력 증가 때문이다.

본교가 학력증진 우수학교(국어, 영어, 수학 통합 부산시 일반계고 1위)로 선정되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대입을 보장할 수 없기에 학교와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불굴의 도전 정신과 항학열이다. 목표가 간절할수록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표가 간절하고 절실하니 화살 실 가는 시간도 아깝더라"는 본교 출신 서울대 합격생의 말에 학생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천고 진학상담부장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반상화나 방송, 유인물을 통해 개도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우정필 (남천동)



##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에게 공경지가 섞였을 때는 옆에서 그의 단점을 말해도 거지로 들리고, 바로 일러주는 사람이 오히려 미워지며, 또 한편 쉽게 보았다면 그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치가 떨리고 보기 싫어지기 마련이다.

위(衛)나라 임금의 미종을 드는 미자하(彌子瑕)란 미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기에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자하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길이 멀고 험하여 마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어머니의 살아계신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가(御駕)를 타고 달려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임금의 여가를 승낙 없이 타면 벌로서 두 다리를 잘라게 되어 있었다.

이튿날,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는커녕 오히려 미자하를 칭찬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야. 다리를 잘라 줄 알면서도 여가를 뚫고 어머니를 버려 달려가다니..."

며칠 뒤, 임금은 신하와 함께 파수원으로 갔다. 그때 미자하는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먼저 따서 한입 베어 먹었다. 그리고 그 복숭아를 반쯤 먹고 나머지를 임

금 앞으로 내밀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저 바릇없는 놈 보라. 신하인 주제에 감히 임금에게 먹던 것을 드려다니. 분명 호된 꾸중을 들을 거야."

그런데 신하들의 생각과 반대로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자하, 너는 어쩌면 마음씨가 그렇게도 고우나? 맛있는 복숭아를 집에게 주려고 나머지 반을 다 먹고 싶을 텐데 참은 걸 보면. 그래, 정말 고맙다."

몇 해가 지나자 미자하도 옛날과 같은 아름다움이 없어졌다. 하는 짓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미자하는 아주 작은 일로 임금께 꾸중을 듣고 쫓겨났다. 임금이 말했다.

"저 놈은 옛날부터 버릇이 없는 놈이었어. 신하인 주제에 걸 갖하면 집을 깔보고 제 마음대로 했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좋아서 죽고 못 산다 해도, 미워져서 아가 갈린다 해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그 농도가 바뀌어지기 마련이며,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지만,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변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꽃다발 과대포장 삼가름

2월에는 각급학교의 졸업식이 잇따라 거행된다. 매년 졸업광경을 보아 오면서 자녀나 친구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면서 꽃다발을 사서 축하해 주곤 한다.

그런데 꽃다발을 살 경우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꽃 한 송이 송이마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혹은 겹포장을 세 겹, 네 겹 심지어 대여섯 겹까지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선 보기에는 좋지만 집에 가져가 보면 포장지는 재활용도 할

수 없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실상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이며 또한 환경오염인가. 따라서 꽃을 선물할 때에 겹포장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꽃다발과 한 장의 포장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한다. 그대로 화병에 꽂으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우향유(문현3동)

## 방화수 읍지 않게 해야

불조심, 365일, 날마다 반복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몇 년 전만해도 거리에는 불조심

가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오래되고 낡은 실내를 인테리어한 뒤

## ■ 詩 가 있는 풍경

## 이기대의 봄

개마리 눈움에  
잔잔해 수줍다 한다  
유채꽃 춤출 추니  
벚꽃은  
하얀 내비되어 날  
이기에 연경 너머  
일몰 기다리며  
우뚝 선 오목도  
세가 물어다주는 꽃향기에  
화정  
파도소리 정경자  
봄바람 불어온다



엄 게 온

부산여성문화인회 사무국장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불법광고물 중점단속

읍란 전단지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건의해 주신 대연3동 유영학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이 매일 단속·정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연3동 도로는 집중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된 읍란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구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건수는 5만7,168건 입니다.

<도시관리과·임숙경>

## 남구국민체육센터 이용하세요

(www.namgusports.or.kr)

## 토요스포츠클럽(주5일지원) 및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신규) 안내

구분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	회차	수업시간
토요스포츠클럽	토요 수영교실	초등	토	25,000원	9시/10시/13시/14시/15시
	주말 어린이수영	초등	토/일	33,000원	14시/15시
	주말 헬스	14세이상	토/일	15,000원	09:00~19:00 (단, 일요일은 17시까지)
	토요 배드민턴	초등	토	25,000원	9시
	토요 농구교실	초등	토	25,000원	11시/14시/15시
	토요 음악줄넘기	초등	토	25,000원	12시
	토요 댄스스포츠	초등	토	25,000원	9시
	토요 유희댄스	초등	토	25,000원	10시
	토요 요가교실	초등	토	25,000원	11시/14시
	토요 축구교실	초등	토	25,000원	12시/15시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아쿠아로빅 + 문화강좌 (재력측정)	만65세 이상	월/수/금 (본기월 1회)	본인부담 1만원 (정부지원 11만원)	18시

\* 주말 프로그램 및 자유이용 등 기타문의 ☎626-8200

\* 노인맞춤형프로그램 문의 (부산대 웰스케어 실장 ☎010-6787-5526)

## 상따라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2012. 3.>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 (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산정산악회	3월11일(일)	경남 통영 소매물도	010-4566-8516
	대산산악회	3월11일(일)	경남 거창 우두산	010-9979-0702
	약천산악회	3월21일(수)	경북 문경 주물산	010-4655-4370
	영포산악회	3월11일(일)	영덕 칠보산	010-3590-1215
	천암산악회	3월8일(목)	경북 상주 갑점산	010-6601-5929
	환경산악회	3월4일(일)	함양 여항산	011-575-3448
	용호산악회	3월25일(일)	여수 영취산	010-3848-0911
	21C산악회	3월11일(일)	경남 통영 미륵산	010-9752-0218
	금강산악회	3월4일(일)	고흥 거금도 적대봉	011-865-9051
	제일산악회	3월4일(일)	전남 고흥 적대봉	011-594-4192
용호동	용신산악회	3월11일(일)	가야산 만물산	011-488-3307
	산이줄아산악회	3월25일(일)	금산 서대산	010-9889-8880
	한마음산악회	3월11일(일)	해남 달마산	010-2567-7885
	여명산악회	3월4일(일)	전남 광양 백운산	010-3554-4392
	산사량산악회	3월20일(화)	전남 광양 꽃비산	010-2552-4236
	한울타리산악회	3월11일(일)	지리산둘레길1코스	010-7650-1984
	부산산악회	3월4일(일)	경주 남산	011-576-2729
	봉우리산악회	3월25일(일)	밀양 가자산 - 백운산	010-9939-9921
	문화산악회	3월25일(일)	충남 금산 대토산	016-564-8882
	용마산악회	3월11일(일)	남해 금산 보리암	010-4433-8809
김인동	홍곡산악회	3월11일(일)	속리산	011-854-1045
	글로벌산악회	3월18일(일)	전남 강진 만복산	010-8287-1192
	녹색산악회	3월25일(일)	충산도 산행	011-9315-6331
	우일산악회	3월4일(일)	전남 광양 꽃비산	010-6666-3577
	한솔산악회	3월11일(일)	섬진강 꽃비산	010-8524-8224
	자유산악회	3월25일(일)	충북 옥천 월미산	011-9321-6363
	유남산악회	3월18일(일)	전북 진안 구룡산	010-7520-6666
	문현2산악회	3월11일(일)	남해 금산 보리암	016-570-0539
	문현산악회	3월18일(일)	소백산	010-4147-9395
	문사산악회	3월11일(일)	전남 화순 백마산	019-558-2828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월 남구생활체육회 교실에 참가를

\* 접수처 : 남구생활체육회 ☎644-7330, 607-6389

교실	요일	시간	수업장소	수업기간	접수기간
생활체육(테니스) 무료교실	월·화·목·금	09:30~11:00	백운포테니소장 (용호동 버스종점)		
생활체육(골프) 무료교실	화·목	09:00~10:00	A-Bonsil내골프연습장 (경성대 아웃백 맞은편 소재)		
생활체육 (에어로빅&나이트댄스) 무료교실	월·수·금	10:00~11:00	한국댄스스포츠 아카데미 (대연6동 소재)		
생활체육(블링) 무료교실	월·수·금	11:00~12:00	우일블링장 (문현6동 소재)		
수영	A반	12:00~12:50			
	B반	13:00~13:50			
	C반	14:00~14:50			
	D반	15:00~16:00			
탁구	A반	10:00~11:30	유엔탁구장 (유엔로터리)		
	B반	11:30~13:00			
	C반	13:00~14:30			
	D반	14:30~16:00			
배드민턴	초급(A)	10:00~11:30	용호체육관 (용호1동 체육공원)		
	초급(B)	11:30~13:00			
	A반	08:00~10:00			
	B반	10:00~11:00			
요가	C반	15:00~16:00	남구생활체육회 교육관 (대연6동 소재)		
	D반	18:30~19:30			
	화·목 (토, 일 자유회)	09:30~10:30			
	화·목	19:00~20:00			
저녁반	A반	08:00~10:30			
	B반	10:30~12:00			
	C반	13:00~14:30			
	D반	14:30~16:00			
골프	E반	08:00~10:30	대연골프프라자 (대연4동)		
	F반	10:30~12:00	유엔로터리 소재)		
	G반	13:00~14:30			
	H반	14:30~16:00			
아침광장교실	생활체육	월~금 06:20~06:50	성천초등학교(우암2동)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월~금 06:00~07:00	부산환경공단남부사업소, 꽃실경관		
	생활체육	월~금 06:30~07:30	장지산체육공원(용호동 이기대)		

\* 골프수업문의 : 대연골프클럽프라자 ☎625-8701 ~ 2

## ■ 나의 생각

## 원손잡이 편견 버리자



이 재 량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표정이 온종일 시무룩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는 느닷없이 '아빠, 나는 왜 원손잡이야?'라며 끼어들었다. 원손잡이로 태어난 걸 낸들 어쩌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난감했다.

그리고 얼마 후 TV를 보던 녀석이 갑자기 소리치며 흥분했다. "어? 저 아버지 원손잡이네. 미국 대통령이잖아?"

TV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의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야구를 하며 가정에서 휴식을 즐기는 장면이 나왔다. 그걸 보면 아이가 단박에 '원손잡이'인걸 알아채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친 것이다.

아이가 흥분할만 했다. 자신이 원손잡이인데다가 원손잡이로서 생활에 적응은 불편이 따르고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미국 대통령이 원손잡이란 걸 알았으니 말이다.

학교에서 가끔 아이들이 원손잡이라고 놀리고, 공작시간에 가위나 칼을 잡고 쓰기도 불편하다고 말해오던 티였다. 내가 그 심

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금보다 그런 편견이 훨씬 강했던 시절에 원손잡이로 학교를 다닌 아빠였기 때문이다.

원손잡이를 가리키는 영어 'sinister'는 '불길한, 사악한, 못된' 등을 뜻하며, 또 다른 단어인 'left'에는 '서투른, 극단적인, 의심스러운' 등 부정적인 뜻이 담겨있다.

우리나라도 원손잡이를 터부시하는 전통이 유난히 강했다. 우리말에서 오른손이 '바른손'이라는 인식 때문에 왼쪽은 상대적으로 '그르다'는 뜻을 가리킨다.

한자어로 밀려나는 좌전(左遷)이나, 좌·우각간의 이념대립에서 '좌'라는 언어에 불온하고 위협한 의미를 덧씌웠다. 원손잡이를 '짜배기', 우리지방에서는 '까락잡이'라고 비하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등 세계적인 천재들을 비롯 레이건, 클린턴 등 미국 대통령 중에도 유독 원손잡이가 많다. 현 오바마 대통령도 원손잡이다.

원손잡이는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된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원손 사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컴퓨터 마우스, 자동차 시동장치, 카메라 셔터 등 부지기수다.

이런 거야 본인들이 견뎌내고 하지만 원손잡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역울하다. 애든 어른이든 원손잡이에 대한 나쁜 편견과 시선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암2동·회사원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장 이 福 熙 / 편집장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전화(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